
글짓기 수상작

심사평

현재 운흥사 범종이 일본 근진미술관(根津美術館, 네즈)에 소장되어 있다. 이 범종은 1690년에 당대 최고의 명장이던 김애립 주종장이 주조한 당대 최고의 범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범종이 원래 봉안했던 운흥사로 귀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제법상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범종이 운흥사로 귀환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기증에 의한 귀환, 둘째 구매에 의한 귀환, 셋째 운흥사 종을 똑같이 모사한 모종 제작을 통한 간접적인 귀환 등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셋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모종하여 운흥사에 봉안하면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이 잘 표현된 글이 좋은 글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공모된 글 가운데 이에 합당한 글이 상당수 되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들 글 가운데 2점을 선정하여 널리 기리고자 한다.

2018년 11월 5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명대

글짓기 수상작

심사평

고산문화재단 주최 ‘운흥사 범종 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 글짓기 공모전에 응모한 글짓기 작품을 검토한 결과

첫째, 현재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의 폭이 매우 넓고

둘째, 반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상대국의 유지·보존에 대한 노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셋째, 공모전을 통해서나마 무조건적인 적대시보다는 어떠한 경로로 반출되었는가에 대한 반성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018년 11월 5일

동국대학교교수 김창균

그림 수상작

심사평

네즈미술관 소장 운흥사 범종 반출 경위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흥사 범종을 함께 그려요’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처럼 운흥사 범종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모두 3세 어린이가 수상을 하였는데, 무의식 속에 담겨진 운흥사 범종에 대한 마음이 자유롭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은 3세를 전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미술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3세 이전에는 비교적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만, 3세 이후에는 점점 사회적 학습으로 인해 마음이 가는 그림 보다는 보고 배운 정형화 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부산정보고등학교의 박서영 학생은 규격화된 틀 안에서 표현을 한 점은 아쉽지만, 산사 속의 범종의 울림을 표현하기 위해 범종 아래에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마치 누군가가 범종을 치는 듯한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범종에 그려진 붓 터치가 거칠면서 선이 살아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부문에 22점이 출품되었고, 그중 3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참가자들과 운흥사 범종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5일

고산문화재단상임이사 신정아